

## 접사의 유사-기호성 성격

—‘있음’ 및 ‘없음’을 의미하는 한국어, 우즈베크어 파생접사의  
동의관계를 중심으로—\*

로지코바 무니라

### Abstract

**Rozikova Munira**. 2016. 12. 31. **Sign-like Behavior of Affixes: Synonymic relationships of Korean and Uzbek derivational affixes with the meaning ‘having’ and ‘without’**. *Bilingual Research* 65, 91-129. The present paper aims at proving sign-like behavior of affixes by focusing on one of the semantic properties of derivational affixes, namely, synonymy. To prove the fact that derivational affixes get into synonymic relationship with other derivational affixes within the language, I first collected synonymous derivational affixes with the meaning ‘having’ and ‘without’ from Korean and Uzbek. After organizing affixes into pairs, I applied two out of three synonymy-related tests, the opposite test and substitution test, which were originally proposed by Ullmann(1962) and reintroduced in Lim(2008) to test synonymy of lexemes. Applying these tests to derivational affixes that can be attached to an identical stem showed that (1) majority of affixes in both languages can be in synonymic relationship with other affixes, which indicates that affixes can have semantic properties just like lexemes and thus be viewed as signs and that (2) along with the universality of synonymy, derivational affixes can display individual properties when the opposite test is applied to them. (Ewha Womans University)

---

\* 이 논문은 2016년 4월 2일에 개최된 이중언어학회 제33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장향실(상지대) 교수님께, 의의 있는 논문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Key words】** derivational affixes(파생 접사), semantic property(의미론적 특성), synonymic relationship(동의관계), adjective(형용사), Korean(한국어), Uzbek(우즈베크어), Sino-Korean affix(한자어 접사), native affix(고유 접사)

## 1. 서론 및 연구의 목적

일종의 관습적 기호인 언어기호의 대부분은 기호의 유형적 차이에 있어서는 자의적 기호(arbitrary sign)다. 즉 기호가 지칭하는 대상을 기호의 형태와 연결하여 추측할 수는 없으며,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과 기호의 형태 사이의 불연속성(discreteness) 때문에 언어기호가 “제한된 기호로 무한한 개념을”(임지룡 2008: 42) 표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언어기호의 기본단위인 어휘소의 의미 전달 능력에 대한 연구들 중에 어휘소가 전달하는 의미 사이에 성립되는 계열관계와 결합관계, 그 중에서도 계열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언어기호의 자의적 성격이 다의성, 동의성, 대립관계, 상하관계 등의 여러 계열적 의미관계를 있게 하는데, 어휘소의 의미의 계열관계를 다의어, 동의어, 대립어, 하의어 등에 주목하여 진행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Saussure(1965)는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 요소인 접사들의 의미 전달 능력에 대한 최초의 관심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Saussure(1965) 이후 Lieber(1992), Beard(1988, 1990, 1995), Lehrer(2000) 등 접사를 기호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계속되면서 몇몇 학자에 의하여 특정 언어의 예를 들어 접사의 유사-기호성 성격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의존형태소로서의 접사를 다루던 기존의 형태론적 논의들과 다른, 의미론적 특성을 가진 단위로서의 접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접사의 유사-기호성 성격을 접사의 의미론적 특징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 연구가 각각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어 외의

다른 언어의 접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사의 의미 전달 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는 영어 접사의 의미관계를 연구한 Lehrer(2000), 한국어 단어 형성에 있어 접사의 의미관계를 연구한 최형용(2008)이 있다. 먼저 Lehrer(2000)은 “접사가 기호인가(Are affixes signs?)” 하는 연구 질문을 세워, “제일 중요한 계열적 의미관계”인 대립관계, 동의관계, 상하관계 등의 의미관계를 영어 파생접사들 사이에서 찾으려고 하였으며, Lieber(1992)에서 언급하였듯이 접사가 의존적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특히 대립관계와 동의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접사도 일반 어휘소와 다른 점이 없으며, 그러므로 접사도 기호(sign)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앞선 Lieber(1992)의 연구를 지탱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Lehrer(2000)는 영어파생접사의 의미관계를 다루었다면, 최형용(2008)에서는 의미론에서만 다루어져왔던 동의어를 형태론적으로 재분류하여 단어 구성요소인 접사의 의미관계에 주목을 하여 동의파생어를 설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형용(2008)의 연구는 동의관계에 있는 접사들에 의해 파생된 단어들도 의미관계에 있게 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동의 파생어들끼리 높은 정도의 동의성을 지니게 되는 이유는 이들 동의파생어를 형성하는 데에 참여한 접사의 동의성 때문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 외의 한국어 접사의 의미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 연구들은 접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해당 접사의 형태론적 특징을 다룬 연구와 특정 의미의 접사를 정하여 둘 이상의 언어에서의 관련 접사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한자어 부정접두사의 결합 양상을 연구한 박석문(1999), 최홍열(2009), 현영희(2012), 접두 한자어의 의미와 기능 및 분포를 다룬 노명희(2004), 부정의 의미를 지닌 접두 한자어의 형태론을 연구한 노명희(1997) 등이 있다.

접사의 의미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의미 관계의 존재에 초점

을 맞추어서 특정 언어에서의 예를 들어 접사가 나타내는 의미관계를 종류별로 고찰한 바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어휘소의 의미관계를 다룰 때 적용된 동의성의 검증 방법을 적용하여 동의성을 지닌 접사들 목록 중에서 특정 접사의 동의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접사의 유사-기호성 성격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차별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의미의 접사들의 동의관계와 대립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지룡(2008)이 올만(1962)에서 인용하여 재소개한 동의성의 검증 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동의어의 검증 기준을 이용하여 동의접사를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임지룡(2008)을 기본으로 참조하되, 접사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을 상세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변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의관계의 경우, 임지룡(2008: 136)에서의 설명을 바탕으로, 동의성, 동의관계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임지룡(2008)에서는 동의관계란 “형태가 다른 둘 이상의 어휘소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는 정의를 제공하였으며, 절대적 동의관계(absolute synonymy)와 상대적 동의관계(relative synonymy)의 “두 가지 층에서 이해된다.”고 하였다. 단어의 동의관계에 대하여 말할 때 ‘동의어’ 및 ‘유의어’라는 용어가 있는 이유도 동의관계의 이해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층의 존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미의 접사들을 위주로 접사의 동의관계를 논의함으로써 접사도 어휘소와 같은 기호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의도를 가진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취하게 된 연구 방법의 소개에 이어 연구의 대상 및 자료를 위하여 참고하게 된 서적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인 접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들 접사를 대상으로 그 동의관계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선행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재진술하겠다.

## 2. 연구 방법 및 자료

본고의 연구 방법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관련 대표적인 개론서와 사전을 참고하여 각 언어의 일반화된 접사<sup>1)</sup>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 목록을 대상으로 이들 접사의 동의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였다. 개별 언어에서의 접사의 의미관계는 개별적으로 한국어 및 영어의 접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미 시도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는 접사의 동의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언어의 접사들을 동시에 다루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접사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의 영역을 확대해보고자 한다. 접사의 유사-기호적 성격을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의 접사를 대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두 언어에서의 ‘있음’ 및 ‘없음’을 함의하는 접사들은 어원상 고유접사인 것과 외래접사인 것을 두루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원이 다르나 의미가 비슷한 접사들이 동의관계의 검증에 있어 언어적 보편성 또는 개별성을 보이는가 하는 취지에서 이 두 가지 언어의 접사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 되었다.

‘있음’ 및 ‘없음’을 함유하는 고유 접사 및 외래 접사를 두루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접사들의 동의성의 검증을 위하여 동의어 검증의 세 가지 기준 중에 대립검증(opposite test)과 교체검증(substitution test)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 두 언어의 접사들이 의미의 계열관계 중에 동의관계를 보이는지 등의 언어적 보편성을 찾아보고, 이와 동시에 접사의 동의관계에 있어 이들 언어만의 언어적 개별성이 있는지 또한 찾아보고자 한

---

1) 여기서 ‘접사(affix)’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의 접사, 즉 ‘파생접사’를 가리킨다. 단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모습을 관찰할 때, 굴절접사(inflexional affix)와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를 아울러 가리키는 넓은 의미의 접사가 아니라 관찰 범위에서 굴절법(inflexion)을 제외한 조어법(word formation)에 따라 관찰한 이유 때문이다(이익섭·채완 1999: 64, 고영근·구본관 2008: 205 참조).

다. 특히 대립검증에서 대응 체계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 두 언어가 대응 체계에서도 보편성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개별 특성이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대응 체계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접사의 동의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있음’ 및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를 선정하기 위해 본고에서 각 언어별로 참고한 개론서와 사전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어 개론서는 이익섭·채완(1999)의 《국어 문법론 강의》를, 고영근·구본관(2008)의 《우리말 문법론》을, 우즈베크어 개론서는 Rahmatullayev(2008)의 《Hozirgi Adabiy O'zbek Tili(현대 우즈베크 문어(文語))》를 참고하였다. 사전의 경우, 한국어는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우즈베크어는 Ma'rufov(1981)의 《O'zbek Tilining Izohli Lug'ati(우즈베크어 뜻풀이 사전)》과 Madvaliyev(2006)의 《O'zbek Tilining Izohli Lug'ati(우즈베크어 뜻풀이 사전)》을 참고하였다. 개론서와 사전을 동시에 참고하게 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접사로 정하여 연구된 항목 중에 해당 언어의 개론서와 사전에 수록된 부분에 있어 차이를 보인 접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개론서와 사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의 여러 사전 중에 접사가 표제어로 수록된 것도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의 ‘유(有)’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접사로 수록되어 있으나, ‘유(有)’가 접사적 요소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개론서 역시 학자마다 특정 형태소를 접사로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은 학자들의 접사 관련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본 연구에서 접사로 선정한 ‘무(無)’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최홍열(2009), 현영희(2012) 등에서는 접사로, 노명희(2005)에서는 부정 접두한자어로 연구된 바 있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접두파생어를 다룬 방향옥·강희숙(2009)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목록에서 제외된 바가 있다. 학자마다 접사의 선정에 있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접사의 선정 기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음은 본고에서 취하게 된 접사 판별 및 선정의 기준을 간략히 설명하는 부분이다. 우선 본고에서 다루려는 파생접사 자체에 대하여 이익섭·채완(1999: 60-1, 88, 91)을 참고하였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접사는 단어의 주변부를 형성하고, 의존적이며, “한 단어의 형성에 있어 겹가지의 구실을” 하며, 파생어를 직접구성성분(IC)으로 분리하였을 때 “그 직접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되는” 형태소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접사는 “문장성분이 될 수 없고”, “접사와 명사 사이에는 제3의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한국어 고유 접사, 우즈베크어의 접사 판별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설명이다. 한국어의 한자어 접사의 경우, 노명희(2005)의 접사성 한자어 판별 기준도 참고하였다. 노명희(2005: 79-113)에서는 접사성 한자어에 대해서 [분리 불가능성], [수식 범위 한정], [의미 변화], [어기 범주 변화], [고유어 결합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접두사성이 많은 접두한자어와 관형사성이 많은 접두한자어로 판정하였고, 접미한자어에 대해서는 [의존성], [어기 범주 변화], [의미 변화], [첫 음절 출현 불가], [구에 결합 가능], [조사 결합 제약] 등의 여부에 따라 접미사와 의존명사, 약활성 어근을 구별한 바가 있다.

파생접사에 대한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개념 중 파생접사의 생산성(productivity), 단일어화(lexicalisation), 그리고 파생어 형성 규칙의 제약 등이 있는데, 이 개념들은 접사의 판별 및 선정 기준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여 결론적으로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를 나타내게 하는 이유인 것이기도 한다. 이들 개념에 대해서는 고영근·구본관(2008: 206-9)의 설명을 보면, 파생접사가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생접사 규칙의 생산성이라 일컬었으며, 많은 수의 파생어를 만드는 파생접사일수록 ‘생산적인’ 접사라고 부르며, 반대로 적은 수의 파생어를 만드는 파생접사일수록 ‘비생산적’이

라고 부른다고 하였다<sup>2)</sup>. 또 다른 개념인 어휘화(또는 단일어화)는 파생접사가 형성한 파생어가 독자적으로 쓰이게 되면서 “파생관계를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어 단일어처럼 이해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파생어 형성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파생어 형성 규칙의 제약의 경우, “규칙에는 일정한 조건이나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하여 “어근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제약, “특정한 품사의 어근과만 결합하는 형태·통사론적 제약”, “어근의 의미상의 특질에 따른” 의미론적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파생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데에 작용하는 제약”도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제약을 ‘저지 현상(blocking)’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저지 현상이란, 파생 규칙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가 “의미상으로 유사한 다른 단어의 존재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연구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이의 섭·채완(1999)에서 기재된 파생접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한국어, 우즈베크어별로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된 과정을 설명하겠다.

2) Lieber(1992)에서는 생산성의 정의로는 Schultnik(Schultnik 1961, von Marle 역 1985)에서 제안한 ‘언어 사용자들이 대체적으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구성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는 가능성(필자 역)’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이며, Schultnik의 정의에서의 ‘아무런 생각 없이(unintentionally)’와 ‘셀 수 없을 만큼의(uncountable)’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형태론적 생산성’과 ‘형태론적 창조성’이라는 표현을 도입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형태론적 창조성이란 단어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여, 의식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되면, 그 단어는 비생산적인 것이며, 또한 매우 특이해서 언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의식적이면서 비생산적인 형태론적 창조성에 비해 형태론적 생산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단어를 만들 가능성이 크며, 언어 사용자들 또한 이들 단어를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Lieber(1992: 4)에서는 접사들의 생산성과 관련하여, 접사들이 보이는 생산성의 정도의 차이는 다음의 현상들로부터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1)음운론적 제약, (2)통사론적 제약, (3)접사가 붙는 어기의 의미론적 제약, (4)어기의 어원, (5)특정 논항(argument) 구조의 동사와 결합하는 접사(예, agentive/instrumental -er, -able, -ee), (6)음절수(예, 영어 형용사의 비교급 -er), (7) 특별한 강세 패턴(예, 영어의 명사 형성 접사 ‘-al’).

다음은 연구 자료에 대한 것인데, 앞서 언어별로 소개된 대표 사전과 개론서에서 가져온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였다. 우즈베크어 사전의 경우 앞서 언급된 두 개의 우즈베크어 뜻풀이 사전 외에 Qo'ng'irov·Tikhonov(1968)의 《O'zbek Tilining Chappa Lug'ati(우즈베크어의 거꾸로 사전)》<sup>3)</sup>도 참고하게 되었다. 《거꾸로 사전》이란, 표제어가 “초성이 아닌 종성에 따라”<sup>4)</sup> 나열된 사전이다.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단어들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의 모두가 같은 나열에” 서게 되는 《우즈베크어 거꾸로 사전》은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을 가진 교착어인 우즈베크어의 조어 체계를 반영할 수 있어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의 예를 대거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하게 되었다.

대상 접사들이 형성한 단어로 되어있는 표제어의 해설 부분에서 ‘접사’, ‘qo'shimcha(접사)’ 등과 같이 해당 접사의 용법에 대한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접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일어화가 된 표제어와 구별하는 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를 위하여 사전을 참고하게 되었다.

### 3.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의 범위

대부분의 언어에서 ‘있음’과 ‘없음’은 대립되는 개념이다. 한국어에서는 “‘있다’에 대하여 ‘없다’는 어휘차원의 대립어(임지룡 2008:134)<sup>5)</sup>”, 우즈베크어에서는 ‘bor(있다)’과 ‘yo'q(없다)’가 “대립의 짝(Rahmatullayev 외 1980: 12)”으로 기재되어 있다. 필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파생접사’와 ‘없

3) Qo'ng'irov·Tikhonov(1968)의 《우즈베크어 거꾸로 사전》은 튀르크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위주로 이런 종류의 사전을 편집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러시아어의 거꾸로 사전을 편집하여 독일에서 출판한 Bilfeldt(1958)의 사전에 이어 편집된 것이다.

4) 《우즈베크어 거꾸로 사전》(1968: 3).

5) 한국어에서 ‘있다’와 ‘없다’는 형태론적 특징이 서로 달라 품사 분류 및 활용형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의 ‘있다’와 ‘없다’의 형태론적 차이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위하여 이익섭·채완(1999: 124-6)을 참고 바란다.

음’을 의미하는 파생접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있음’ 또는 ‘없음’을 지시하며 어기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서 어기의 속성이 있거나 없다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파생접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떤 특징이 있다’와 ‘어떤 특징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의 품사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경우기 많다. 따라서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들도 형용사 형성 접미사가 대부분임을 볼 수 있다.

언어별로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로 선정하게 된 접사들을 한국어, 우즈베크어의 순으로 살펴보겠다. 각 접사의 위상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 해당 접사의 의미와 기능을 비롯하여 해당 접사의 단어 형성에 있어서의 위치, 즉 접두사 또는 접미사임을 밝히고, 고유접사 또는 외래접사에 해당되는지, 결합하는 어기의 어종에 영향을 받는지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있음’의 의미를 가진 접사를 먼저 다루고, 이어서 그 대립의 의미인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한국어 접사

‘있음’ 또는 ‘없음’의 의미를 가진 한국어 접사는 ‘있음’을 의미하는 접사의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의 수에 비해 비교적 많다. 수가 비교적 많다는 점 외에 ‘있음’이라는 넓은 의미 내에서 단순히 ‘있음’의 의미인 접사도 있는 반면 ‘풍부히 있음’ 등 정도의 차이가 있는 접사들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유(有)’를 살펴보겠다. 접사의 겉모습과 그 내용과 관련하여, 접사들은 자립형태소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일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어의 ‘유(有)’→‘유(有)-’<sup>6)</sup> 그리고 영어의 ‘full’→‘-ful’

6) 《표준국어대사전》(전자사전)에서는 표제어 ‘유(有)’에 대하여 “『명사』 있거나 존 재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접두사 ‘유(有)-’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는 앞선 표제어 ‘유(有)’를 참고하도록 돌리고 있다(2016년3월14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Lehrer(2000: 145)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문법화(grammaticalization)의 결과로 자립형태소가 의존형태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有)-’는 표제어에 오를 때 접사로 기재되는 경우가 사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구자에 의해 접사로 인정되어 연구된 경우가 극히 적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용법에 대하여는 접사라고 하였으며,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 결합 상대가 한자어 명사인 것이 일반적이다. 사전에는 접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有)-’가 그 동안 연구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노명희(2005: 79-88)에서의 접사성 한자어의 판별 기준의 적용을 통해 알아본다면, 다음 (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 (1) ‘유(有)-’: [+분리 불가능성]→[+수식 범위 한정]→[-의미 변화]→  
→[-어기 범주 변화]→[-고유어 결합 가능성]

(1)에서처럼 계층적으로 적용된 이번 판별 기준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본다면, 어기와의 분리가 가능한 관형사와 달리 ‘유(有)-’는 어기와의 분리가 불가능하고, 또한 단어 이상의 수식 범위를 가진 관형사와 달리 ‘유(有)-’는 어기에만 작용한다. 그 다음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는 의미변화의 기준으로 보면, ‘유(有)-’가 원의미로 쓰인 어기에서 의미변화를 겪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유분수’, ‘유자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유(有)-’는 원의미에서 특별히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有)-’는 다른 한자어 접두사들처럼 어기의 범주를 바꿀 수 있는 특성이 약해 보인다. “원래 ‘하다’ 결합이 불가능한 명사에 결합하여 ‘하다’ 결합이 가능한 ‘형용사성 명사(Adjectival Noun)’로 그 범주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노명희 2005: 88)” ‘무(無)-’와는 달리

‘유(有)-’는 그렇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유(有)-’가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는 예가 없어 위에서 언급된 판별 기준으로 보면 접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지만, ‘유자격’-‘무자격’, ‘유선’-‘무선’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有)-’와 ‘무(無)-’가 동일 어기와 결합하여 대립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형성하였다는 점과 직접구성 성분도 [유[선]], [유[자격]]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접두사로 보기로 하였다. ‘유(有)-’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들이 몇몇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는 표제어로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형태론자의 입장에서 접사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위와 같은 특성들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보려는 ‘있음’을 의미하는 접사들은 본고에서 접두사로 다루고 있는 ‘유(有)-’와 달리 모두 접미사들이다. 이익섭·채완(1999),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형용사 형성 파생접미사로 기재되어 있다, 즉 어기의 의미뿐만 아니라 품사 등의 문법적 성질도 바꿀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다루어지는 일부 형용사 형성 접미사에 대하여는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로 언급하기보다는 “‘있음’ 또는 ‘없음’을 함유하는 접사’로 서술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곧이어 다루어지는 ‘-하-’와 ‘-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형용사 파생접사이기도 하나 동사 파생 접사이기도 때문에 구별 없이 모두 ‘있음’의 접사로 보게 되면 모든 동사, 형용사 파생 접미사를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다루어야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들 접사는 특별히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사들은 아니며, 해당 어기와 결합한 경우에만 ‘어기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들이라는 것이다.

먼저 ‘-하-’와 ‘-되-’에 대해 알아보겠다. 동사 형성 접미사의 구실도 하는 ‘-하-’(《표준국어대사전》: ‘-하다’)에 대하여 이익섭·채완(1999: 93)에서는 명사 또는 어근과, 또한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기재하였다. 접미사 ‘-되-’(《표준국어대사전》: ‘-되다’) 또한 명사나 어근에 붙어 형용사를 만든다. 다음의 (2)와 (3가, 나)는 ‘-하-’와

‘-되-’가 ‘어기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형용사를 만든 것들이다. 이들 접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형용사 형성 접사로 수록되었다.

(2) ‘다정-하-다’=“정이 많다.”<sup>7)</sup>

(3) 가. ‘세련-되-다’=“모습 따위가 말쑥하고 품위가 있다.”;

나. ‘거짓-되-다’=“사실과 어긋남이 있어 참되지 않다.”

다음으로 ‘-지-’(《표준국어대사전》: ‘-지다’)는 명사와 결합하여 “그런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sup>8)</sup> 다음의 (4가, 나)를 보면 접미사 ‘-지-’가 결합하여 형성된 형용사는 어기의 특징이 단순히 ‘있음’보다는 ‘많이 있음’을 함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가. ‘멋-지-다’=“매우 멋이 있다.”;

나. ‘기름-지-다’=“음식물 따위에 기름기가 많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살지고 기름기가 많다.” 등.

‘-롭-’은 명사 또는 어근에 붙어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접미사다. ‘-스럽-’(《표준국어대사전》: -스럽다)은 명사 또는 어근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정의하였다. ‘-답-’(《표준국어대사전》: -답다)은 ‘아름답다’, ‘정답다’와 ‘신사답다’, ‘군인답다’의 의미 및 기능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 또는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접사의 기능과 명사와만 결합하는 굴절적인 기능을 가지는데, 따라서 본고에서는 파생접사로서의 ‘-답-’을 다루는 것이다. ‘-답-’은 파생접사의 기능일 때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한다. 다음의 (5), (6), (7)은 이들 접사로 만들어진 단어들인데, 특히 (6)과 (7)을

7) 단어의 뜻을 풀이를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참고하였다.

8) 일부 접사의 설명을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참고하였다.

보면 ‘-스럽-’과 ‘-답-’은 어기의 특성에 대해 ‘그러한 데가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5) 가. ‘향기롭다’=“향기가 있다”  
나. ‘보배롭다’=“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  
다. ‘풍요롭다’=“흙뻘 많아서 넉넉함이 있다”
- (6) 가. ‘수상스럽다’=“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나. ‘탐스럽다’=“마음이 몹시 끌리도록 보기에 소담스러운 데가 있다”  
다. ‘어른스럽다’=“나이는 어리지만 어른 같은 데가 있다”
- (7) 가. ‘정답다’=“따뜻한 정이 있다”  
나. ‘참답다’=“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진실하고 올바른 데가 있다”

다음의 접사들도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 파생접사들이다. ‘-쩍-’(《표준국어대사전》: ‘쩍다’)은 명사 또는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하여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데가 있음’을 함의한다. ‘-맞-’(《표준국어대사전》: -맞다)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또는 어근 뒤에 붙어 ‘그것을 지니고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다. 다음(8)과 (9)는 ‘-쩍-’과 ‘-맞-’에 대한 것이다.

- (8) 가. ‘의심쩍다’=“의심스럽다”  
나. ‘객쩍다’=“행동이나 말, 생각이 쓸데없고 싱겁다”  
다. ‘수상쩍다’=“수상한 데가 있다”
- (9) 가. ‘익살맞다’=“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하는 태도가 있다”  
나. ‘능글맞다’=“태도가 음흉하고 능청스러운 데가 있다”

다음은 ‘-적(的)’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수록되었다. 그 기능은 두 가지가 있으며,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과 “조사 ‘-으로’와 ‘-이다’가 붙어서 부사어 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이익섭·채완 1999: 112). 노명희(2005: 109)에서는 접미한자의 판별 기준을 한자어 ‘-적(的)’에 적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10)과 같다.

- (10) ‘-적(的)’: [+의존성]→[+어기 범주 변화]→[+의미 변화]→  
 →[+첫 음절 출현 불가]→[+구에 결합 가능]→  
 →[+조사 결합 제약]

(10)의 계층적 판별 기준 결과 ‘-적(的)’은 모든 판별 기준에서 양성을 보이며 접미사로 판정하고 있다. ‘적극적’, ‘관료적’에서 볼 수 있듯이 어휘 범주가 다르나, 의미상으로는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접미사들과 비슷해 보인다. 접미 한자어 판별 기준에서 접사성이 확인됐다는 점과 ‘적극적’, ‘관료적’의 예에서처럼 어기와 결합하여 어기의 속성이 ‘있음’을 함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적(的)’을 본고에서 접미사 목록에 포함시켰다.

또한 ‘눈물겹다’, ‘홍겹다’, ‘힘겹다’, ‘정겹다’에서처럼 일부 명사에 붙어 그 결합한 명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접미사 ‘-겹-’도 있다. 주 기능이 형용사를 만드는 것인 ‘-스럽-’과 비슷하며, 형성된 형용사는 마치 ‘그것이 넘칠 만큼 많이 있음’의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 참고한 개론서 및 사전에서는 접사로 기재되거나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겹-’이 ‘-겹다’라는 표제어로 수록돼 접사로 설명된 사전도 있다(예, 문학박사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1994)》). 본고에서는 ‘-겹-’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음은 ‘없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 접사에 대한 것이다. 대표 접사로는 한자어 접사 ‘무(無)-’, ‘몰(沒)-’과 고유어 접사 ‘-없-’이 있는데, 이들 형태소를 접사로 다루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없-’은 이익섭·채완(1999)에서 명사 또는 어근에 붙어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접미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접미사 용법으로 쓰이는 표제어로 올라와 있지 않다<sup>9)</sup>. 의미는 다음의 (11)에서처럼 명사 또는 어근의 특징이 없음을 나타낸다.

(11) ‘부질없다’=“대수롭지 아니하거나 쓸모가 없다”

형용사 파생 접사로서의 ‘-없-’은 단어의 끝가지의 구실을 한다는 점과, ‘-없-’과 명사 사이에는 제 3의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파생된 형용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없-’을 파생접사의 목록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무(無)-’는 한자어 파생법에서 파생접두사의 역할을 하며, ‘없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영근·구본관 2008: 246-7). ‘무의미하다’, ‘무책임하다’에서 볼 수 있듯이 ‘무(無)-’와 비서술성 명사가 붙어 이들은 다시 ‘하다’ 결합이 가능해지게 된다. 노명희(2005)에서의 접사성 한자어의 판별 기준에서는 다음 (12)와 같은 결과를 보여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접두사적 성격이 많으나 확실한 접두사로 보기에는 확고한 위상을 갖지 않아 약활성 어근이라고 하였다.

(12) ‘무(無)-’: [+분리 불가능성]→[+수식 범위 한정]→[-의미 변화]→  
→[+어기 범주 변화]→[-고유어 결합 가능성]

그러나 원래의 형태에서부터 접사성을 띠게 된 ‘무(無)-’는 언어사용자들에 의해 이미 고유어처럼 인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맛’에서처럼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와의 결합도 가능하다. ‘무가치’, ‘무의미’, ‘무맛’을 직접구성성분으로 분류할 때 [무[가치]], [무[의미]], [무[맛]]처럼

9) 문학박사 이기문이 감수한 《동아 새국어사전》(1994)에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없거나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수록되었다.

단어의 구성성분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無)-’를 접두사로 다루기로 하였다.

‘몰(沒)-’은 명사 앞에 붙어 “‘그것이 전혀 없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노명희(2005)에서는 접사성 한자어의 계층적 판별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 (13)과 같은 결과를 얻어 “접사성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 어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약활성 어근으로” 다룬 바가 있으나, (14)에서처럼 ‘몰(沒)-’은 ‘무(無)-’와 같이 직접 구성 성분으로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접사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13) ‘몰(沒)-’: [+분리 불가능성]→[+수식 범위 한정]→[-의미 변화]→  
→[+어기 범주 변화]→[-고유어 결합 가능성]

(14) 가. 몰상식하다: [[몰[상식]]하다]

나. 몰염치하다: [[몰[염치]]하다]

이상으로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한국어 접사로 선정한 것들을 의미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접사 목록

의미	선정 접사
‘있음’	‘유(有)-’, ‘-하-’, ‘-되-’, ‘-지-’, ‘-롭-’, ‘-스럽-’, ‘-답-’, ‘-쩍-’, ‘-맞-’, ‘-적(的)’ (10개)
‘없음’	‘-없-’, ‘무(無)-’, ‘몰(沒)-’ (3개)

### 3.2.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우즈베크어 접사

우즈베크어에서의 ‘있음’ 또는 ‘없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는 한국어의 접사처럼 접두사 또는 접미사 형태로 되어있는 것들이 있고, 어원 또

한 외래 접사나 고유 접사로 되어있는 것들도 있다. ‘있음’을 의미하는 접사 중에 ‘어기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접사와 ‘어기의 특성이 풍부히 있음’을 의미하는 접사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접사의 경우와 비슷하다.

우즈베크어 접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에 앞서, 이들의 전체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Abdurasulov(2009: 111-2)에 의하면 튀르크어족(Turkic) 언어들(우즈베크어를 포함한 카자흐어, 노가이어, 타타르어, 꼴리크어(Quliq), 터키어, 아제르바이잔어, 바슈키르어 등)의 형용사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들 언어에서 접사를 이용한 형태론적(morphological) 방법이 형용사를 형성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크어의 ‘-siz’, ‘-li’, ‘ba-’, ‘be-’는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형성하는 주요 접사로 나열되었다.<sup>10)</sup> ‘ba-’와 ‘-dor’는 ‘없음’을 의미하는 ‘be-’와 함께 페르시아-타지크어에서<sup>11)</sup> 귀화한 외래 접사들이다. Muxtorov.Sanaqulov(1995: 92)에 의하면,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외래 단어들의 구성요소였던 접사들이 나중에 우즈베크어에서도 접사처럼 쓰여 단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 중에 우즈베크어 고유 접사 못지않은 생산성을 가진 것들도 있다. ‘-li’는 ‘없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siz’와 함께 튀르크(Turkic) 언어족에 속하는 우즈베크어의 고유 접사이며, 생산성이 높아 다른 튀르크 언어들에서도 ‘-li’와 ‘-siz’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의 예를 대거 찾을 수 있다(Abdurasulov 2009: 105-107참고). ‘ba-’, ‘be-’ 등의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접사들은 단어 형성

10) Abdurahmonov 외(1992).

11) 우즈베크어가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어휘의 영향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하여 Muxtorov.Sanaqulov(1995: 26-7, 35-6)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과정에서 6-8세기에 이르러 튀르크 부족들이 정착하면서 페르시아 언어를 쓰는 민족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민족의 언어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컸으며 특히 우즈베크어 문법은 그 구성을 그대로 간직되 아주 많은 페르시아-타지크어계 단어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들 단어들로 인하여 우즈베크어에서 동의 관계 어휘가 풍부해졌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시 선호하는 어종이 있으며, 이들 접사는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어기는 물론 아랍어계<sup>12)</sup> 어기 또는 우즈베크어의 고유 어기와 결합하는 일이 잦은 반면, 러시아어 등의 외래어와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15)의 단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 가. ?be - plomba

외래 접두사 ‘없음’ - (치과용) 필링  
 ‘필링이 없는’

나. ?be - partiya

외래 접두사 ‘없음’ - 정당  
 ‘정당이 없는’

이제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들을 ‘ba-’, ‘-dor’, ‘-li’의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ba-’는 《우즈베크어 뜻풀이 사전》(2006)에 따르면, 페르시아어의 4에서 유래한 접두사다. “주로 아랍어계, 페르시아-타지크어계 단어의 앞부분에 결합하여, ‘어떤 특징이 있음’을 의미하여, 형용사 형성 접사인 ‘-li’와 동일하게 쓰이는” 파생접사라고 기재하였다. 다음(16)은 ‘ba-’가 결합한 단어들의 예인데, 모두 명사에서 형용사가 파생된 것이며, 어기의 특징이 ‘있음’ 또는 ‘풍부히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

(16) 가. ba - davlat

‘있음’ - 부(富)

---

12) 아랍어는 우즈베크어를 포함한 튀르크 어족 언어들의 어휘 규모에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어휘들만큼의 큰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언어이며, 8세기 초부터 아랍인들이 종교 확산의 목적으로 중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아랍어로부터 많은 단어와 관용어들이 귀화되었다(Muxtorov-Sanaqulov 1995: 94-5). Tursunov 외(1995: 43)에서는 아랍어가 Somiy언어들의 남쪽 그룹에 속하고, 역사적으로 고대 아랍어, 고전 아랍어, 새 아랍어의 3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아시아 언어들은 7-9세기에 발전한 아랍어인 고전(classic) 아랍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부유한’

나. ba - hayo

‘있음’ - 수줍음

‘수줍음이 많은’

다. ba - salobat

‘있음’ - 위엄

‘위엄이 있는’

‘ba-’는 사전에 접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어의 ‘유(有)-’처럼 접사 연구 대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ba-’를 구성성분으로 하여 우즈베크어로 들어온 단어들은 굳어진 의미가 강하고, 새로운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횟수가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 ‘be-’에 비하여 훨씬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접 구성성분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있는 반면 단어를 구성성분으로 분류할 때 ‘ba-’가 하나의 성분으로 그 단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파생어들도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접사로 다루고자 한다.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접사 ‘-dor’는 본고에서 참고한 뜻풀이 사전에는 접사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즈베크어의 거꾸로 사전》에서는 ‘-dor’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dor’가 결합한 단어들 중 몇 개는 단일어화의 결과로 대중에 의해 굳어진 명사로 쓰이는 경향이 있고 비슷한 의미의 경쟁자들에게 밀려 새로운 단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17가, 다)의 ‘-dor’가 명사와 결합하여 ‘그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형용사를 만든 예들이고, (17나, 라)는 (17가, 다)의 형용사가 명사화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17마)는 명사와 ‘-dor’가 결합하여 ‘그것이 있거나 많음’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든 예들이다. (17바, 사)는 ‘-dor’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고유접사 ‘-li’가 동일 어기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인데, 대부분

의 경우 고유 접사로 형성된 형용사가 사용되어, ‘-dor’ 결합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7) 가. homila - dor (ayol)

태아 - ‘있음’ (여성)

‘임신한 여성’

나. homilador-lar gigiyena-si

임산부-복수어미 위생-단수 3인칭 소유격

‘임산부들의 위생’

다. qarz - dor (odam)

빚 - ‘있음’ (사람)

‘빚진 사람’

라. qarzdor-lar yig'ilish-i

채무자-복수어미 모임-단수 3인칭 소유격

‘채무자들의 모임’

마. bo'y(키) - bo'ydor(키가 큰), xol(점(點)) - xoldor(점(點)이 많은), vafo(충성) - vafodor(충성하는), mo'ylov(콧수염) - mo'ylovdor(콧수염이 많은/진한), burun(코) - burundor(코가 큰), dong(명성) - dongdor(명성이 많은/유명한)

바. tajriba - dor

경험 - ‘있음’

‘경험이 있는’

사. tajribali - li

경험 - ‘있음’

‘경험이 있는’

앞선 (17마)에서 볼 수 있듯이 ‘-dor’로 파생된 형용사들의 예가 많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dor’를 파생접사로

다루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li’가 있는데, ‘-li’는 앞선 ‘ba-’와 ‘-dor’, 특히 전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우즈베크어의 고유 형용사 파생 접미사다. 《우즈베크어 뜻풀이 사전》에는 수록되어있지는 않지만, 개론서에서는 형용사를 형성하는 주요 접미사로 기재된다. 다음의 (18)에서처럼 어기의 어종과 상관없이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뛰어나다.

- (18) 가. *chiroy - li*  
예쁨 - ‘있음’  
‘예쁜’  
나. *barg - li*  
있 - ‘있음’  
‘있이 있는’  
다. *adolat - li*  
정의(正義) - ‘있음’  
‘정의의’  
라. *taktika - li*  
전략 - ‘있음’  
‘전략적’  
마. *amper - li*  
암페어 - ‘있음’  
‘암페어의’

앞선 (18가)는 ‘-li’가 고유어 어기와 결합하여 형성된 형용사를, (18나)는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어기와 결합한 것을, (18다)는 아랍어계 어기와 결합한 예를, (18라, 마)는 러시아어계 또는 다른 외래어 어기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형용사들을 보여준다.

‘있음’을 의미하는 접사로는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접미사 ‘-mand’, ‘-nok’

등도 있는데 다음의 예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19) 가. kasal - mand  
 병 - ‘있음’  
 ‘자주 병에 걸리는’  
 나. alam - nok  
 양심 - 있음  
 ‘양심을 품은’  
 다. g'azab - nok  
 분노 - ‘있음’  
 ‘분노한’

위(19)의 접미사들로 만들어진 단어들은 단일어화의 결과 굳어진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어서 ‘없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우즈베크어 접사들을 살펴보겠다. ‘없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로는 ‘be-’, ‘-siz’가 있다. 먼저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접사 ‘-be’인데, 《우즈베크어의 뜻풀이 사전》(2006)에서는 페르시아-타지크어계 بى에서 유래한 것임을 지적하고, “명사와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두사”로 수록되어 있다. 생산성이 뛰어나고, 다음 (20가)에서처럼 우즈베크어계 어기, (20나)와 같이 페르시아어계 어기, (20다)와 같이 아랍어계 어기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 (20) 가. be - to'xtov  
 ‘없음’ - 정지  
 ‘정지가 없는’  
 나. be - baxt  
 ‘없음’ - 행복  
 ‘행복이 없는’

다. be - ayb

‘없음’ - 잘못

‘잘못이 없는’

‘없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우즈베크어 고유어 접사로는 ‘-siz’가 있는데, 앞선 ‘be-’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어기에 붙어서 만들어진 형용사의 수도 많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결합한 어기의 어종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be-’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다음의 (21가)를 보면, ‘-siz’가 우즈베크어계 어기, (21나)에서는 페르시아어계 어기, (21다)에서는 아랍어계 어기, 그리고 (21라)에서는 러시아어계 어기를 포함한 다른 외래어에 붙어 만들어진 형용사들을 볼 수 있다.

(21) 가. yordam -siz

도움 - ‘없음’

‘도움이 없는’

나. darmon - siz

힘 - ‘없음’

‘무기력한’

다. ishtaha - siz

입맛 - ‘없음’

‘입맛이 없는’

라. sistema - siz

체계 - ‘없음’

‘체계가 없는’

이상의 우즈베크어 접사들 중에 본고에서 선정한 것들을 의미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우즈베크어 접사 목록

의미	선정 접사
‘있음’	‘ba-’, ‘-dor’, ‘-li’ (3개)
‘없음’	‘be-’, ‘-siz’ (2개)

지금까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에서의 ‘있음’ 또는 ‘없음’을 나타내는 접사들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각 언어에서의 접사들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한국어는 한자어 접사와 고유어 접사를, 우즈베크어는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접사와 고유어 접사를 포함하고 있다. 두 언어의 접두사 모두 외래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접미사는 외래어 접사와 고유어 접사 등 두 종류가 존재한다. 본고에서 접사로 인정한 접사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있음’ 또는 ‘없음’을 의미하는 한국어, 우즈베크어 접사

언어	접사	‘있음’의 의미	‘없음’의 의미	접두사	접미사	어원	
						외래	고유
한국어	‘유(有)’	○		○		○	
	‘-하’	○			○		○
	‘-되’	○			○		○
	‘-지’	○			○		○
	‘-롭’	○			○		○
	‘-스럽’	○			○		○
	‘-답’	○			○		○
	‘-쩍’	○			○		○
	‘-맞’	○			○		○
	‘-적(的)’	○			○	○	
	‘-없’			○		○	○
	‘무(無)’			○	○		○
‘몰(沒)’			○	○		○	

우즈 베크어	'ba-'	○		○		○	
	'-dor'	○			○	○	
	'-li'	○			○		○
	'be-'		○	○		○	
	'-siz'		○		○		○

#### 4. 접사의 동의관계

##### 4.1. 동의성의 검증 기준

동의성이란 앞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태가 다른 둘 이상의 어휘소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지룡 2008)을 말하는데, 여기서 미세한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휘소 간의 동의관계가 절대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접사의 동의관계 또한 미세한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 ‘있음’을 의미하는 접사로 묶고 있는 한국어 파생접사(‘유(有)-’, ‘-하’, ‘-되’, ‘-지’, ‘-롭’, ‘-스럽’, ‘-답’, ‘-쩍’, ‘-맞’, ‘-적(的)’)와 우즈베크어 파생접사(‘ba-’, ‘-dor’, ‘-li’) 및 ‘없음’의 의미로 묶여진 한국어 파생접사(‘-없-’, ‘무(無)-’, ‘몰(沒-)’)와 우즈베크어 파생접사(‘be-’, ‘-siz’)도 그 많은 수의 파생접사들 중에서 미세한 차이의 동의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선정한 것들이다. 이제부터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 접사의 동의성을 살펴보겠다.

동의어 검증에는 세 가지 기준 즉 교체검증(substitution test), 대립검증(opposite test), 배열검증(arrange test)이 있으며, 이들 검증 방법에 대하여 임지룡(2008: 141-7)에서 올만(1962: 143-5)을 재인용하여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동의어의 검증 방법

검증기준	내용	검증 대상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	검증 대상 어휘소의 예
교체검증	상대적 동의어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문맥 속에서 한 어휘소를 다른 어휘소로 교체한다.	문맥에서 의미차이 없이 교체 가능성	‘달리다’ - ‘뛰다’
대립검증	상대적 동의어 사이의 의미 거리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대립어를 사용하여 동의어를 찾아낸다.	사용된 대립어 간의 동의성	‘작다’ - ‘적다; ‘맑다’ - ‘깨끗하다’
배열검증	동의성의 정도에 따른 의미 차이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동의성의 정도가 모호한 어휘소들을 하나의 계열로 배열한다.	하나의 선 위에 배열 가능성	접시-대접 -사발-공기; ‘하나-둘-셋-넷’과 ‘한-두-세-네’

본고에서 선정한 접사들의 동의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적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본 검증방법을 위하여 동일 어기에 붙는 접사들을 위주로 묶어 나열하게 되었다. 그리고 분포 상 차이가 있는 접사도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어 접사 ‘-적(的)’이 동의관계에 있는 다른 접사(‘-스럽-’: ‘촌스럽다’, ‘-롭-’: ‘한가롭다’, ‘-답-’: ‘정답다’, ‘-되-’: ‘복되다’, ‘-하-’: ‘고독하다’)와 동일 어기를 두고 배타적인 분포에 있다는 점에서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한국어 접사 ‘유(有)-’도 ‘있음’을 의미하는 접사들 중에 유일한 명사 형성 파생접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성 접사들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국어 접사 ‘-없-’ 또한 동일 어기를 두고 결합한 접사의 예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無)-’ 또는 ‘몰(沒)-’과 함께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앞선 <표 4>의 검증방법 중에 교체검증과 대립검증의 방법을 본고의 대상인 ‘있음’ 및 ‘없음’을 의미하는 접사들을 검증하는 데에 원용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명사를 형성하는 ‘무(無)-’, ‘몰(沒)-’의 동의성을 확인하는 데에

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교체검증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무(無)-’, ‘몰(沒)-’, ‘유(有)-’를 제외한 접사들 모두가 형용사 형성 파생접사들이기 때문에 대립검증의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아래 <표 5>는 동일 어기와 결합이 가능한 접사들을 쌍으로 묶어 나열한 것이다.

<표 5> 동일 어기에 붙는 접사 목록

의미	한국어	우즈베크어
‘있음’	가. ‘-되-’ - ‘-스럽’ 나. ‘-하-’, ‘-스럽’ 다. ‘-찍-’, ‘-스럽’ 라. ‘-되-’, ‘-하’ 마. ‘-롭-’, ‘-스럽’ 바. ‘-지-’, ‘-스럽’ 사. ‘-맞-’, ‘-스럽’	차. ‘ba-’ - ‘-li’ 카. ‘-dor’ - ‘-li’
‘없음’	자. ‘무(無)-’ - ‘몰(沒)-’	타. ‘be-’, ‘-siz’

<표 5>의 한국어 접사 묶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있음’을 의미하는 ‘-스럽-’이 거의 모든 묶음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만큼 ‘-스럽-’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스럽-’의 높은 생산성의 이유에 대해서 최형용(2008: 40)에서 송철의(1992: 209)에서 재인용하여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스럽-’이 ‘-롭’과 같은 다른 접사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그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4.2. 접사들의 동의관계의 검증

앞선 <표 5>에서의 접사 묶음 중에 <표 5>(자)를 제외한 모든 접사를 대립검증의 방법으로 검증해 보겠다. 검증 대상 접사로 만들어진 파생어들에 해당되는 오른쪽의 대립어를 통해서 의미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검증되는 접사가 붙은 단어의 대립어들 또한 동의관계에 있으면 상대적 동의관계의 접사들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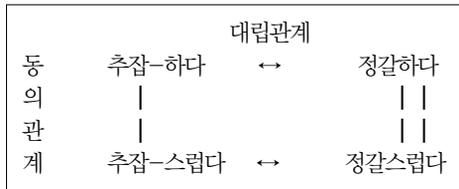
먼저 <표 5>(가)의 ‘-되-’, ‘-스럽-’을 검증하겠다.



<그림 1> ‘-되-’와 ‘-스럽-’의 대립검증

그림(1)을 보면 ‘참되다’, ‘참스럽다’의 대립어인 ‘거짓되다’, ‘거짓스럽다’ 또한 서로 동의관계에 있는 단어들이어서 ‘-되-’와 ‘-스럽-’의 동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 2>, <그림 3>은 <표 5>의 (나, 다)를 대립검증의 기준으로 검증한 것이다.



<그림 2> ‘-하-’와 ‘-스럽-’의 대립검증



<그림 3> ‘-쩍-’과 ‘-스럽-’의 대립검증

한편 ‘-하-’, ‘-쩍-’, ‘-스럽-’이 동일 어기와 결합하여 동의어를 만든 예도 있다. ‘수상’이라는 명사와 붙어 만들어진 단어들이는데, 이들은 각각 ‘수상하다’(=“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럽다”), ‘수상쩍다’(=“수상한 데가 있다”), ‘수상스럽다’(=“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와 같이 동의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다음은 <표 5> (라) ‘-되-’, ‘-하-’를 대립검증의 방법으로 그 동의성을 검증한 것이다. ‘진실되다’와 ‘진실하다’ 두 단어 모두 ‘거짓되다’라는 동일 단어와 대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립관계	
동 의 관 계	진실-되다	↔	거짓되다
	진실-하다	↔	거짓되다

<그림 4> ‘-되-’와 ‘-하-’의 대립검증

<표 4>의 (마) ‘-롭-’과 ‘-스럽-’은 동일 어기를 위주로 가장 많은 동의어를 만든 접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접사 ‘-롭-’과 ‘-스럽-’이 어기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의파생어의 쌍은 최형용(2008: 39-40)에서 대거 등장한다. 앞선 <표 5>(나)와 (다)의 ‘-하-’, ‘-쩍-’, ‘-스럽-’이 동일어기에 붙어 동의파생어를 형성한 경우를 언급하였는데, <표 5>(나)와 (마)의 ‘-하-’, ‘-롭-’, ‘-스럽-’ 또한 동일 어기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접사가 어근 ‘한가-’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한가하다, 한가롭다, 한가스럽다’가 그 예인데, 이들의 대립어는 ‘바쁘다’라는 단어라는 점에서 세 단어 모두 동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의관계 접사라도 동일 어기에 붙어 항상 동의파생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다음 (2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2) 가. \*경사하다

나. 경사롭다, 경사스럽다

(23) 멋지다(=“매우 멋이 있다”) ≠ 멋쩍다(=“하는 것이나 모양이 격에 어울리지 않다”)

(22)는 동의관계에 있는 ‘-하-’, ‘-롭-’, ‘-스럽-’이 아무 어기에도 자유롭게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23)은 접사 ‘-지-’가 동일 어기와 결합했는데도 전혀 동의어가 아닌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를 형성한 경우를 보여준다.

<표 5>(바) ‘-지-’와 ‘-스럽-’의 대립 검증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지-’, ‘-스럽-’이 동일 어기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형용사의 대립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 접사의 동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사)의 ‘-맞-’, ‘-스럽-’의 예를 보면, 이들이 동일한 단어와 대립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접사의 동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립관계		
동 의 관 계	멋-지다	↔		비루하다
	멋-스럽다	↔		비루하다

<그림 5> ‘-지-’와 ‘-스럽-’의 대립검증

		대립관계		
동 의 관 계	익살-맞다	↔		진지하다
	익살-스럽다	↔		진지하다

<그림 6> ‘-맞-’과 ‘-스럽-’의 대립검증

다음은 ‘있음’을 의미하는 우즈베크어 접사들의 대립검증에 대한 것이다. <표 5>의 (차, 카, 타)의 의미 거리는 다음 <그림 7, 8, 9>와 같이 그 의미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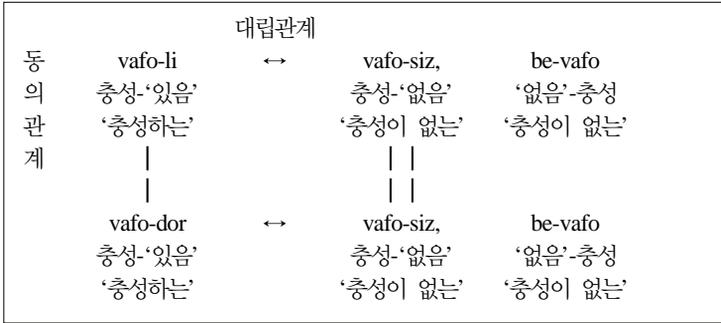
동 의 관 계	be-qadr	↔	qadr-li,	*qadr-dor <sup>13)</sup>	?baqadr
	‘없음’-가치		가치-‘있음’	가치-‘있음’	
	‘무가치한’		‘가치가 큰’	‘가치가 큰’	
	qadr-siz	↔	qadrli,	*qadr-dor,	?baqadr
	가치-‘없음’		가치-‘있음’	가치-‘있음’	
	‘무가치한’		‘가치가 큰’	‘가치가 큰’	

<그림 7> ‘be-’와 ‘-siz’의 대립검증

동 의 관 계	ba-ma’ni	↔	ma’ni-siz,	be-ma’ni
	‘있음’-의미		의미-‘없음’	‘없음’-의미
	‘의미 있는’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ma’ni-li	↔	ma’nisiz,	be-ma’ni
	의미-‘있음’		의미-‘없음’	‘없음’-의미
	‘의미 있는’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그림 8> ‘ba-’와 ‘-li’의 대립검증

13) <그림 7>에서의 \*qadrdor’는 이러한 단어가 존재하나, 자주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qadrdor’는 이러한 단어가 우즈베크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림 9> ‘-li’와 ‘-dor’의 대립 검증

위 <그림 7>에서처럼 대립된 단어가 동일하다는 것은 절대적 동의성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없음’을 의미하는 페르시아-타지크어계 접사 ‘be-’, 그리고 고유 접사 ‘-siz’가 동일 어기에 붙어 형성된 단어들 중 대부분이 절대적 동의관계(absolute synonymy)를 갖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음 (24)에서 볼 수 있듯이, 《우즈베크어 뜻풀이 사전》(2006)에서는 이들 접사가 동일 어기에 붙어 형성된 단어들 중 하나를 해설하는 부분에 한국어로 ‘~와/과 동일’을 의미하는 우즈베크어 단어인 ‘aynan’의 짧은 형태인 ‘ayn.’ 옆에 접사의 짝으로 형성된 단어를 기재하였다. 이것은 (24)에서처럼 왼쪽 표제어의 해설은 오른쪽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가. BE-SABAB ayn. sabab-siz

‘없음’+이유 동일 이유+‘없음’  
‘이유가 없는’

나. BE-SANOQ ayn. sanoq-siz

‘없음’+수(數) 동일 수(數)+‘없음’  
‘무수한’

다. BE-XAVF ayn. xavf-siz

‘없음’+위험 동일 위험+‘없음’

## 라. BE-TA'SIR ayn. ta'sir-siz

‘없음’+영향 동일 영향+‘없음’

‘영향이 없는’

여기서 페르시아-타지크어 접사 ‘be-’가 붙은 단어의 해설을 위하여 고유접사 ‘-siz’가 붙은 단어로 돌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앞선 검증 방법을 통해 한국어 및 우즈베크어 접사도 의미적 계열관계를, 여기서 동의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두 언어의 언어적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적 보편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함께 대립 검증에서는 동의관계에 대한 대응 체계에서 언어적 개별성의 존재도 드러났는데, 제시된 대응 체계를 유형화하여, 이들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각 언어의 개별성에 대한 설명을 해 보겠다.

한국어 접사의 동의관계를 검증한 <그림 1-6>에서 제시된 대응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①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동의접사, ②통합적 대응이 가능한 동의접사, ③체계적 대응이 없는 동의접사. <그림 1>의 ‘참-되다 대 거짓-되다’, ‘참-스럽다 대 거짓-스럽다’, <그림 2>의 ‘추잡-하다 대 정갈-하다’, ‘추잡-스럽다 대 정갈-스럽다’, <그림 3>의 ‘의심-적다 대 믿음직-하다’, ‘의심-스럽다 대 믿음직-스럽다’에서처럼 동의관계에 있어 접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동의접사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의 경우, ‘진실-되다, 진실-하다 대 거짓-되다’에서처럼 ‘거짓’에서 ‘되다’로 통합된다는 것으로 미루어 통합적 대응이 가능한 동의접사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림 5>의 ‘멋-지다, 멋-스럽다’, <그림 6>의 ‘익살-맞다, 익살-스럽다’에 대하여 접사의 체계적인 대응이나 통합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체계적 대응이 없는 동의접사의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다.

우즈베크어 접사의 동의관계 검증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동의접

사의 유형보다는 통합적 대응이 가능한 동의접사 유형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7>의 ‘be-qadr, qadr-siz’는 ‘qadr(가치)’에서 ‘-li’로 통합되는 것도 가능하고,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dor’로 통합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또한 <그림 7>에서 나와 있듯이 ‘-ba’로 통합되지는 않는다. 한편 <그림 8>의 ‘ba-ma’ni, ma’ni-li’는 ‘ma’ni(의미)’에서 ‘-siz’와 ‘be-’ 두 접사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 9>의 ‘vafo-li, vafo-dor’도 ‘vafo(충성)’에서 ‘-siz’와 ‘-be-’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동의관계에 있어 제시된 대응 체계에서 언어별 유형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의 ‘있음’을 함의하는 접사들이 동일 어기에 붙어 동의성이 강한 동의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이렇게 파생된 동의어의 대립어는 ‘없음’을 함의하는 접사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우즈베크어 접사가 동일 어기에 붙어 동의성이 강한 동의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한국어 접사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동일 어기와 ‘있음’/‘없음’을 함의하는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에 대한 대응 체계는 동일 어기와 ‘없음’/‘있음’을 함의하는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파생법에서 동일 어기와 동의접사에 의한 동의어 파생법이 보편적이라는 것과, 더 나아가 우즈베크어 파생법의 경우 접사의 의미관계가 동의어뿐만 아니라 대립어 파생에 있어 활발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의 (사)‘무(無)-’와 ‘몰(沒)-’에 동의성의 교체검증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 (25), (26)과 같다.

- (25) 가. 무비판이 초래한 결과  
나. 몰비판이 초래한 결과

- (26) 가. 무비판의 세계
- 나. 몰비판의 세계

위의 예에서 (25)의 (가)와 (나), 그리고 (26)의 (가)와 (나)가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의미를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기호의 종류는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자연적 기호(natural sign)와 약정된 기호에 대한 지식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관습적 기호(conventional sign)로 분류되는 가운데, 약정된 기호 체계를 갖추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기호는 관습적 기호에 속해 있다. 기호의 두 가지 유형 중에 그 형태와 전달하는 의미 대상이 닮아 있는 상적 기호(iconic sign)에 속하는 언어기호도 있지만, 대부분의 언어기호는 지시하는 의미와 형태 사이에 공통성이 성립되지 않는 자의적 기호(arbitrary sign)로 이루어져 있다. 어휘소(lexeme)는 이러한 언어기호의 기본 단위로써 개념을 언어화 및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어휘소에 이어 의미 전달 능력을 가진 또 하나의 단위로서 접사를 주목하여 본고에서 연구하였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접사도 특정 개념을 어휘화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한몫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어휘소의 의미관계 중에 동의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쓰인 검증 방법을 ‘있음’ 및 ‘없음’이라는 개념 아래에 묶여지는 접사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동일 어기에 결합하는 접사들로 형성된 파생어를 대상으로 단어들의 동의성의 대립 검증 방법과 교체 검증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대립검증의 결과 대부분의 파생어의 대립어가 서로 동의성을 갖는다는 점을, 교체 검증의 결과 대상 접사로 형성된 파생어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기가 동일

하면서 파생접사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의 동의성이 단어를 형성한 접사의 동의성 때문이라는 최형용(2008)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또한 대립검증에서는, 한국어 및 우즈베크어 두 언어에서 접사의 의미적 계열관계가 확인된다는 보편적 특성 외에 대응 체계에 있어서 두 언어가 개별성을 보인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한국어의 경우, ‘있음’을 의미하는 접사의 대립검증에서 제시된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동의접사’, ‘통합적 대응이 가능한 동의접사’, 그리고 ‘체계적 대응이 없는 동의접사’ 등으로 유형화하였고, 우즈베크어의 경우 ‘있음’/‘없음’을 함의하는 접사들은 한국어와는 달리 ‘통합적 대응이 가능한 동의접사’라는 한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음’/‘없음’을 함의하는 우즈베크어 접사들의 대응 체계는 동일 어기와의 결합이 가능한 ‘없음’/‘있음’을 함의하는 접사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즈베크어 접사의 의미관계 체계가 동일 어기와 결합하여 동의어, 대립어 등의 다양한 의미관계의 여러 파생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아주 근소한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의접사끼리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접사들의 의미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 접사를 ‘있음’ 또는 ‘없음’이라는 공통적인 개념 아래에 묶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일부 접사들도 ‘있음’ 또는 ‘없음’이라는 개념을 언어화하여 전달하는 능력, 즉 자의적 기호의 성격을 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본 논의는 아직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선정된 접사들 중에 동일 어기와 결합하는 접사들을 위주로만 접사의 유사-기호성 성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동의성의 검증 과정에서 더 많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비록 특정 의미를 가진 접사를 다룬 연구이지만, 그 많은 접사들 중에 동의관계에 있는 접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접사의 유사-기호성 성격을 확인하는 데에 기여하는 연구가 되는 것을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파주: 집문당.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주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서울: 태학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 임지룡(2008).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최형용(2008). 국어 동의파생어 연구, 국어학 52: 27-53, 국어학회.
- Abdurahmonov, Kh., Rafiyev, A., Shodmonqulova, D.(1992). *O'zbek Tilining Amaliy Grammatikasi*. Toshkent: O'qituvchi.
- Abdurasulov, Yo.(2009). *Turkiy Tillarning Qiyosiy-Tarixiy Grammatikasi*. Toshkent: Fan.
- Lehrer, A.(2000). *Are affixes Signs?* In W. U. Dressler, O. F. Pfeiffer, M. Pöhringer, J. Rennison (eds), *Morphological analysis in comparison*, John Benjamins, Amsterdam/Philadelphia, pp. 143-154.
- Lieber, R.(1992). *Deconstructing Morph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rufov, Z. M., ed.(1981). *O'zbek Tilining Izohli Lug'ati* I. Moskva: Russkij Jazyk.
- Madvaliyev, A., ed.(2006). *O'zbek Tilining Izohli Lug'ati*. Toshkent: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 Muxtorov, A., Sanaqulov, U.(1995). *O'zbek Adabiy Tili Tarixi*. Toshkent: O'qituvchi.
- Rahmatullayev, Sh.(2006). *Hozirgi Adabiy O'zbek Tili*. Toshkent: Universitet.
- Rahmatullayev, Sh., Mamatov, N., Shukurov, R.(1980). *O'zbek Tili Antonimlarining Izohli Lug'ati*. Toshkent: O'qituvchi.
- Tursunov, U., O'rinboyev, B., Aliyev, A.(1995). *O'zbek Adabiy Tili Tarixi*. Toshkent: O'qituvchi.
- Qo'ngirov, R., Tikhonov, A.(1968). *O'zbek Tilining Chappa Lug'ati*. Samarkand.
- Öztopçu, K., Abuov, Zh., Kambarov, N., Azemoun, Y.(1996). *Dictionary of the Turkic Languages: Azerbaijani, Kazakh, Kyrgyz, Tatar, Turkish, Turkmen, Uighur, Uzbek*. London: Routledge.

로지코바 무니라(Rozikova Munira)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2-3277-2140

전자우편: korean.syntax@gmail.com

접수일자: 2016년 10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12월 10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5일